

태국 인권도시연구단, 광주서 인권행정 배우다

‘국제인권도시 모델 개발’ 조사·방문…인권네트워크 강화

인권행정 체계 등 학습…5·18묘지 참배 등 광주정신 관심

광주시는 최근 태국 인권도시발전연구단이 시정을 방문,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 행정 체계와 실행 방식 등을 학습했다고 12일 밝혔다.

태국 인권도시발전연구단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도시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박5일간 대한 한국을 방문했다. 연구단은 방문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학·연구 기관, 대표적 인권도시 광주의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정책조사를 했다.

연구단은 지난 11일 시정을 찾아 광주시의 인권 정책과 제도 실현 과정, 인권 행정 운영 경험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인

권정책 추진 경과와 주요 사례, 시정 흥보 영상 상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 행정 체계와 실행 방식을 설명했다.

연구단은 광주시의 전국 최초 인권증 진조례 제정, 인권현장 선포, 5년 단위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지표 운영, 인권을 부즈맨 제도, 인권영향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권이 행정 전반에 내재화된 것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단은 또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국가폭력과 시민 저항의 역사가 어떻게 공공의 기억으로 보존되고, 인권도시 정체성과 국제 연대로 확장되었는지 등을 살펴봤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태국 인권도시발전연구단이 최근 광주시청을 방문,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행정 체계와 실행 방식 등을 학습했다.

화순교육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NEXT 화순교육’ 다짐

‘천년의 지혜에서 생명의 빛으로’
교육공동체 700명 미래교육 공유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은 12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NEXT 화순교육’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순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공유하고 미래(NEXT) 화순교육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행사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구보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내외빈, 교육관계자, 화순 지역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화순초 원드오케스트라와 이서분교 음악줄넘기의 역동적인 신전 공연을 시작으로 화순교육 성과와 기록물 영상 상영, NEXT 화순교육 추진 전략 발표, 교육가족 응원 영상 및 다짐 퍼포먼스



화순교육지원청은 12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NEXT 화순교육’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공연과 영상이 어우러진 서사 중심의 구성을 통해 화순교육의 정체성과 비전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 글로벌 교육 가치 확산, 지속 가능한 교육 생

태계 구축, 지역 정주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 핵심 과제를 대외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이지현 화순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자부심을 품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힘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화순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순=구명규 기자 vip335@gwangnam.co.kr

예술·기업 있는 민간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 확장

전남문화재단 성과공유 등
‘전남 예술 후원의 밤’ 성료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최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지역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전남 예술 후원의 밤’을 가졌다.

‘전남 예술 후원의 밤’은 재단이 2025년 신규로 추진한 ‘전남 예술 후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계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년도 후원기업과 문화예술단체, 지역 기업인과 예술 애호가, 재단 관

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 재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 구조를 넘어, 민간 참여형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모델의 가능성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단은 행사에서 전남형 문화예술 후원 구조와 운영 방식, 추진 결과를 공유하며,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예술 현장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소개했다.

2025년 재단의 ‘전남 예술 후원사업’에는 총 16개 기업과 8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해, 1억4000만원 규모의 후원금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역 기업과 예술단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

력 관계가 실질적인 창작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총 9개 문화예술단체와 21개 기

업의 결연을 바탕으로, 3억9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역 예술단체에 지원해 민관 협력 기반 문화예술 후원 모델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문화재단은 최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지역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전남 예술 후원의 밤’을 가졌다.

2025년 재단의 ‘전남 예술 후원사업’에는 총 16개 기업과 8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해, 1억4000만원 규모의 후원금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역 기업과 예술단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

력 관계가 실질적인 창작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총 9개 문화예술단체와 21개 기

업의 결연을 바탕으로, 3억9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역 예술단체에 지원해 민관 협력 기반 문화예술 후원 모델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제시판

일정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듣는 사람들을 노후생애를 위한

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 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건강을 위해 ‘배에서 난주자’란 모토로 구

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뜰사랑 광주·전남지부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 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12월 26일)

48년생 불편하다면 반드시 들어 고쳐야 한다
60년생 대국적으로 보아야 성취할 수 있다
72년생 속 사랑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94년생 가치 있는 일에 충실히 해야 한다
96년생 그대로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

51년생 손해를 보거나 의외의 지출이 생긴다
63년생 공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하자
75년생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87년생 늦지 않았다 배워두고 보라
99년생 불편해 하는 정황이다

54년생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66년생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눈에 띈다
78년생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
90년생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57년생 생각치 않던 금전 생활이 즐거운 날
69년생 뇌물 조심 작은 것이라도 돌려주라
81년생 거래에 많은 이익이 생긴다
93년생 이성 유혹을 뿌리치자

49년생 갈구하여 왔던 힘이 기반이 생긴다
61년생 천인척을 진심으로 대하고 행동
73년생 본격적 궤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85년생 조금만 기다리면 때가 오게 된다
97년생 의견을 주변에 강요하지 말라

52년생 핵심 위주로 다른 것이 현명하다
64년생 곁과 속이 꽂 찬 모습이라 할 수 있다
76년생 너무 뒷일을 걱정하지 말라
88년생 운수가 불리하니 많은 금전 지출

55년생 나이 들어 익숙한 시험 합격할 수 있다
67년생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날
79년생 주워사람들이 놀랄만한 성공을 이룬다
91년생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58년생 배우자와 의논하면 큰 도움이 될 것
70년생 실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82년생 소망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94년생 좀 더 커블일

50년생 부동산 거래는 절대 안 되니 단념하라
62년생 동쪽으로 진행했을 때 능률이 극대화
74년생 부동산 투자 유혹 괴롭히 멀찌 버리자
86년생 고집은 고집으로 망하는 법
98년생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

53년생 소중한 것을 일을 수도 있다
65년생 진행하던 일은 다른 일 겸쳐서 등장
77년생 일에 시달리지 말고 자중하는 것
89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삼책

56년생 절리고 베이는 것을 주의
68년생 처음은 좋으나 끝이 불안한 하루
80년생 결과를 보게 되는 일에 투자해도 좋다
92년생 기족과 불화의 징조가 보이니 조심

59년생 천성으로 인해서 행운 따르는 날이다
71년생 도움이 있고 자물도 얻게 될 것이다
83년생 자신감 못지않게 침착성도 요청된다
95년생 선배에게 털어놓고 의논